

## 아내 폭력 생존자가 폭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홍 상 희

안 현 의<sup>†</sup>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아내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인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남편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고 현재 폭력 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6명의 경험을 연구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남편에 의한 폭력에서 벗어나게 된 과정 중 경험한 변화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14개의 하위 주제와 이를 포괄하는 5개의 상위 주제를 구하였다. 아내 폭력을 벗어나는 경험에서 떠오른 주요 상위 주제는 ‘힘을 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단절함’, ‘자기 탐색/수용/이해’, ‘주변으로 인해 힘을 얻거나 상실함’, ‘친밀한 관계의 재구성’, ‘남겨진 과제와 희망’이었다. 각 상위 주제와 관련된 하위 범주에 대하여 기술하여 각 상위 주제와 관련되는 경험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위 주제들 간의 관계와 하위 범주에서 발견된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폭력 경험을 보고하는 여성들을 이해하고 상담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내폭력, 가정폭력, 현상학적 연구, 변화 과정, 아내폭력 상담

\* 본 연구는 홍상희(2009)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아내 폭력 피해 여성이 폭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를 요약한 것임.

본 연구에서 인터뷰 준비부터 하위 범주 분석까지 함께 하며 많은 도움을 준 선안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02-3277-2643, E-mail: ahn12@ewha.ac.kr

아내 폭력은 여성들에게 부정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험 중 하나이다. 어떤 행동이 아내 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의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 외에도 남편이 가장으로서 집안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는 가부장적 관점에서 볼 때 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렵지만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폭력이라고 생각되는 행동도 점차 아내 폭력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정희진, 2001). 예를 들어 폭언, 외도를 하며 가족들을 유기하는 것, 의처증, 알코올 남용, 아내의 물건 파괴, 아내가 아끼는 애완동물 학대, 자의적인 재산 처분, 일상에 대한 지나친 통제, 강제적인 성관계 등 신체적·성적·심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동들이 아내 폭력에 포함된다(조홍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2006; Abrahams, 2007).

이러한 폭력은 흔히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나 아내구타, 배우자 폭력(spouse violence),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등으로 명명되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예, 김광은, 2006; 정희진, 2001)에서 사용된 표현이자, ‘아동 학대’, ‘노인 학대’와 같이 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을 드러내며, 물리적인 구타(battering)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폭력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보이는 ‘아내 폭력’을 사용하고자 한다.

아내 폭력 발생률은 국내에서 30%~47% 정도(김예정, 김득성, 2006; 김승권 외, 2008; 정희진, 2001)로 보고되고 있으나, 가정 내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기 꺼리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더 많은 여성이 폭력을 겪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아내 폭력을 이해하기 위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피해 여성들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이

나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예, 김선아, 김소야자, 남경아, 박정화, 이현화, 2003; 김승권 외, 2008; 홍창희, 박유숙, 2001). 그 중 심리적 피해에 대한 연구를 보면, 남편에 의한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여성들은 주로 낮은 자아 존중감과 높은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수치심, 죄책감, 자살 충동을 보인다고 하였다(김광일, 1985; 김선아 등, 2003; 손정남, 차보경 2007). 더 심각한 경우, 피해 여성들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고(전철은, 현명호, 2003; 홍창희, 박유숙, 2001; Herman, 2007), 자살이나 남편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이수정, 2006).

그러나 이와 같은 증상과 부정적 결과에 주로 관심을 가질 때, 아내 폭력 생존자 여성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아내 폭력 생존자들을 상담에서 만날 때 이들이 겪고 있는 우울과 불안, 신체화 증상 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상담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상담자는 더 넓은 시각에서 내담자의 대처와 성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내담자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통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역경을 겪는 인간은 일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오히려 성장해 나간다는 관점은 20세기 후반에 긍정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면서 외상 경험 이후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에 관하여 Park, Cohen과 Murch(1996)은 스트레스 관련 성장(stress-related growth), Tedeschi, Park와 Calhoun(1998)은 외상 후 성장

(posttraumatic growth), Linley와 Joseph(2004)은 역경을 통한 성장(adversarial growth)으로 개념화하여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을 지지하였다. 외상 후 성장 척도를 제작한 Tedeschi와 Calhoun(1996)은 외상 후 성장을 '1)삶에 대해 더 감사하고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중요하게 여김, 2)친밀하고 진솔한 인간 관계를 경험, 3)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깨달음, 4)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길 발견, 5)영적으로나 실존적으로 발전'과 같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아내 폭력을 겪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성장 경험을 탐구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으나 사회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져 왔다. 심영희(1998)는 여성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지며 보살핌의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특성이 있다고 논의한 Gilligan의 관계지향성 이론을 바탕으로, 아내 폭력 피해 여성의 정체성이 남편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존하는 '남편 지향적 정체성'에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는 의존하나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난 '자녀 지향적 정체성'을 거쳐, 경제적·정서적 의존에서 모두 벗어난 '자아 지향적 정체성'으로 발달해 나간다고 하여 아내 폭력 생존자들이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해간다고 하였다. 아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 규명할 수 있는 실체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근거이론을 방법론을 활용한 김주현의 연구(2006)에서는 그 중심 현상을 '생존을 향한 고투'로 두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도록 이끈 인과적 조건은 '안팎으로 폐허가 된 삶, 심각한 피해를 지각함'이고,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친 맥락적 조건은 '부정적 사회인식 의식, 가정폭력

에 대한 인식, 폭력행동 변화 가능성 타진함'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의 광범위한 맥락적 요인으로 '가로막힘(다양한 요인들이 아내 폭력을 단절하는 것을 방해함), 사회망이 내 편에서 붙들어 줌(외부에서 지원과 지지를 받음)'을 두었고, 중심 현상을 다루기 위한 요인을 '폭력행동 변화 도모하기, 벗어날 준비하기, 외부 지원망 도움 찾기, 폭력피해 복구하기, 새 삶에 몰입하기'라고 하였다. 중심 현상에 대한 결과로 '힘의 균형을 이룸, 고통을 통한 성장, 내 몫으로 남겨짐'을 제시하였다.

외국 연구의 경우 Farrell(1996)은 아내 폭력 피해로부터 회복 되는 과정을 '유연성(flexibility), 깨달음(awakening), 관계, 역량강화(empowerment)'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유연성에는 '경계, 회복력(resiliency), 자각 증대, 과거에 대한 인식 증대'가 포함되고, 깨달음에는 '희망, 내적 평화, 영성, 내면의 힘, 감정 다루기'가 포함되며, 관계에는 '조화, 연결, 신뢰'가, 마지막으로 역량강화에는 '자기 존중, 성취감, 자결'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회복 과정은 전체론(holism)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며 어떤 특정한 시기나 과정이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렵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현상학으로 아내 폭력 생존자가 폭력을 벗어나 이러한 변화를 유지하는 과정과 이들의 영성 혹은 종교적 경험(spirituality)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폭력 관계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이며, 타인의 도움을 수용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며, 분노와 상실 및 두려움을 인정하고, 더 이상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떠나보내고, 자신을 재발견하고 내면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종교적 믿음을 회복하며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도

움을 준다'는 주제들이 발견되었다(Senter, & Caldwell, 200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내 폭력에서 벗어나는 경험에는 한 개인의 생활 영역을 아우르는 범위가 포함되어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진행 순서가 선형적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 각 요소 간 선후관계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앞날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위 선행연구들과 같이 아내 폭력 생존자 여성들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기술하여 이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아내 폭력을 겪은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생존자(survivor)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변화 경험과 관련된 심리학적 설명들을 결합하여 상담에 필요한 총체적인 관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가 아내 폭력에서 벗어난 여성이라는 점과,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주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관적·내적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질적 연구 중에서도 개인들이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에 대한 이해를 연구 문제로 하는 경우에 적절한 현상학(Creswell, Hanson, Clark, & Morales, 2007)으로 아내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경험하는 변화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아내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현재 폭력 경험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런 여성들을 '아내 폭력 생존자(survivor)'라고 명명하였다. '생존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비해 피해로 인한 고통에 머물기보다 이에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본 연구 결과에서 발견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연구 결과가 다시 연구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성을 강조하는 질적 연구의 원칙을 따라 글쓰기 과정에 '아내 폭력 생존자'라는 표현을 적극 활용하였다.

어떤 사람이 아내 폭력 생존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를 구할 때에는 국내 및 외국에서 이루어진 관련 질적 연구들과(예, 김주현, 이연호, 2008; Senter, & Caldwell, 2002)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었던 연구 참여자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남편과 최소 만 2년 이상의 별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을 찾기 위해 아내 폭력 피해 여성 지원 단체의 활동가들을 통하여, 쉼터(보호시설)를 찾고, 남편과 별거나 이혼을 하였으며, 현재 적절한 기능 수준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소개 받기도 하고, 연구자가 아내 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에게 참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자료에서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발견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수준까지 사례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신경림, 조명옥, 양진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특징

구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자녀 수 (명)	폭력 피해 기간	폭력 종식 기간
A	50대 중반	이혼	중졸	자영업	1	약 3년	약 4년
B	40대 초반	이혼	대졸	생산직	1	약 3년	약 4년
C	50대 후반	사별	고졸	사무직	3	약 20년	약 10년
D	50대 중반	이혼	고졸	교육직	2	약 18년	약 11년
E	40대 초반	사별	중졸	생산직	2	약 5년	약 3년
F	50대 후반	결혼	대학원졸	교육직	2	약 20년	약 3년

향 외, 2004). 따라서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기 위하여 동일하지 않은 배경을 지닌 연구 참여자들을 만났다.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폭력 피해 기간과 폭력이 중지된 이후의 기간, 연령, 학력, 경제력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의 폭력 경험에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시하여 연구 목적, 연구 참여의 자발성, 언제든지 참여 의사 철회 가능, 개인 정보의 보호, 인터뷰 녹음, 추후 자료 폐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여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내 폭력이라는 외상 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폭력과 관련된 단서를 떠올리면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재경험(reexperiencing)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Allen, 2005), 인터뷰를 하는 동안 상담을 하듯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여 심리적 불편감을 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다.

### 자료 수집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연구 참여자들을 심층 면접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자료 분석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므로(김영천, 2006) 자료 수집과 분석은 순차적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명을 면접 하고 얻은 자료를 분석한 후 다른 연구 참여자를 면접하였으므로 이전의 자료 내용과 분석이 그 다음의 자료 수집과 분석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면접은 한 명당 1회 혹은 2회로 진행하였고, 각 면접은 2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자택, 사무실, 카페 등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곳에서 반구조화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인구 통계학적 내용, 폭력 당시의 경험, 폭력을 경험하고 또 벗어나는 과정에서 성격·대인 관계·인생관 등의 변화, 변화의 계기, 변화의 지속 여부, 변화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자신의 변화에 대한 소감 등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변화’라는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항으로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인터뷰

뷰 중 외상 후 성장의 하위 개념(Tedeschi, & Calhoun, 1996)과 아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이나 회복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예, 김주현, 2006; Farrell, 1996; Senter & Caldwell, 2002)에서 발견되는 ‘가족, 타인과의 관계, 종교, 인생관, 자신에 대한 신념’ 등에서의 변화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다루지지 않은 경우, 관련 질문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면접을 하면서 참여자가 인터뷰 질문에 없는 주제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인터뷰 질문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그 다음 사례부터 활용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심리적 공감대 형성은 연구 작업 성공에 필요한 요소이므로(김영천, 2006), 반구조화 질문지를 바탕으로 하되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가 하는 말을 공감하고 구체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준비된 질문 내용이 모두 다루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내용을 바꾸어 질문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인터뷰 내용을 모두 녹음하여 연구자가 이를 모두 전사(transcribing)하였고, 각 인터뷰 내용은 A4 용지로 22장에서 38장 정도가 되었다. 인터뷰 동안 관찰한 연구 참여자의 인상 및 비언어적 단서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기록을 남겼다.

#### 자료 분석

질적 연구에서 분석 과정의 첫 단계는 자료를 주의 깊게 여러 번 읽고, 자료에 익숙해지는 것이다(Hammersely, & Atkinson, 1995). 따라서 개인적인 판단 및 가정을 잠시 중지하고서 인터뷰 축어록을 반복해서 읽으며 연구 참여자의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을 포착하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기본 의미 단위를 구성하였다. 사례 당 50개에서 64개의 기본 의미 단위가

형성되었다. 기본 의미 단위 중 유사한 내용을 모아서 하나의 범주로 만들고, 각 사례의 범주들을 비교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름으로 수정하여 총 14개의 범주로 축약하였다. 범주화한 내용은 표로 정리하여 부록에서 설명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은 주로 텍스트에 담긴 주요한 주제나 패턴 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김영천, 2006) 분석 내용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료가 분석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Strauss, & Corbin, 1998). 따라서 분석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기존의 코딩과 범주의 이름보다 더 적절한 대안이 떠오르는 경우, 인터뷰 원자료인 축어록으로 돌아가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확인하고 코딩이나 범주 내용을 수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여러 명의 분석자간의 합의를 중요시 하는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와 비교할 때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시각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분석 내용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 과정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포함시켰다. 삼각검증(triangulation)이라고 불리는 위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아내 폭력 생존자들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 심리학과 상담 전공 석사 학위 소지자 한 명과 함께 기본 의미단위를 나누고 이름을 붙였고, 범주와 상위 주제의 이름의 적절성에 대해서 심리학과 상담 전공 박사 과정생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전체 분

석에 대하여 상담자이자 질적 연구 전문가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 결 과

자료 분석 결과 5개의 상위 주제와 14개의 하위 범주를 구하였다. 상위 주제와 하위 범주를 ‘표 2’로 정리하였고, 각 하위 범주와 이를 토대로 한 상위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 힘을 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단절함

연구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며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폭력에

맞서거나, 집을 나오거나, 이혼을 결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구하였으며, 작은 변화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며 자신의 적극적인 대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인식에 따른 결단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더 이상 폭력을 견디거나 막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더 이상 남편의 폭력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들은 ‘이건 아니다’, ‘참을 수 없다’, ‘나를 더 이상 망가트릴 수 없다’,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누가 죽겠다’라고 느꼈고, 소위 바닥을 치고

표 2. 상위 주제와 하위범주

상위 주제	하위 범주
힘을 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단절함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인식에 따른 결단
	자신의 능력을 인식
	외부의 도움과 자원을 찾아다님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의미를 발견함
자기 탐색/수용/이해	자기를 돌아봄
	자신의 부정적인 면까지 받아들임
주변으로 인해 힘을 얻거나 상실함	자녀들이 힘을 실어 줌
	쉼터에서의 경험
	원가족의 영향
친밀한 관계의 재구성	힘을 주거나 빼앗는 그 외의 조건들
	원가족과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음
	관계의 지형을 바꾸고 긍정적인 경험을 함
남겨진 과제와 희망	폭력 경험 후 남겨진 문제들
	앞날에 대한 희망과 바람들

올라오는 경험을 했다.

(그 전에는) 많이 참고, 그냥 당하고 그렇게.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했는데 그 날은 왠지 모르게 안됐던 것 같아요. …… 그런데 그 날은 애들한테 그러는, 딸애 방에까지 와서 그러는 걸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참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애들한테 그러는 거 내가 이제는 못 참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덤벼어요. <E씨>

이를 계기로 연구 참여자들은 전보다 더 실질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도록 대처하게 되었다. 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집을 나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집을 나왔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계획은 세웠었죠. 나는 그 사람(남편)하고 살 생각은 없고 막내가 대학교 딱 입학하는 시점에서 나는 내 인생을 찾아 나와야겠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살았죠. <C씨>

### 자신의 능력을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아상에 손상을 입고 자존감이 낮아졌지만,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남편의 폭력에 대처하였다.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 새롭게 삶을 일구어 가는 과정에서 그 동안 자신이 이루어 온 것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아무 것 아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 선생 하고 있고, 어쨌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필요 없고 애들만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것만이면 된다고 해서 (이혼) 조건을 걸어서 어떻게 해서 하긴 했는데… <D씨>

D씨는 결혼 생활 내내 생계를 책임져왔기 때문에 가진 것 없이 이혼을 하더라도 혼자 아이들을 기르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자신감 덕분에 이혼도 하고, 자녀도 데려올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자신만만한데 그렇게 겁이 많았어, 거기서는 (남편과 살 때). 매를 맞다보면 그래. 혼자 당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정신력으로 나온 것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 잠재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A씨>

천천히라도 핵심을 잡아가지고 놓치지 않고 그걸 붙들고라도 가는 그런 힘이 내게 있더라구. 그래서 그게 되게 기쁘고 자부심을 갖게 돼 나 스스로. <F씨>

A씨는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온 자신을 보며 대단하고 잠재력 있다고 평가하고, F씨는 느리지만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며 만족스러워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경우, 자신의 능력 덕분에 이혼 이후의 삶을 유지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에게 남아있는 문제나 부정적인



부분도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은 나이도 먹고 힘도 많이 잃고.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도 남은 자신감을 발휘해서 하고 있는 것뿐이지. <A씨>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비관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죠. 주눅 들어 있었고. 그러면서도 ‘잘 될거야. 괜찮아, 잘 될거야.’ 이런 생각은 지금도 그래요. …… 그래도 긍정적으로 밝게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E씨>

**외부의 도움과 자원을 찾아다님**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처하였다. 아내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해 주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이는 타인이 주는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과 달리,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C씨는 남편의 폭력 문제로 아내 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단체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 상담을 받기 전까지 혹시 인신매매하는 곳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상담소를 찾아갔다가 외박을 하게 되어 남편의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때 당시만 해도 한참 (사람을) 팔아 먹고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런 데는 아닌

가 생각을 했었죠. …… (상담소를 찾아) 가니까 다 퇴근하고 없더라구 문 닫고. 토요일 오후가 되니까. 그 때 집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휴리닝 입고 막 왔는데. 그래서 그 때 길 건너 여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틀 기다려야 하잖아요, 월요일까지. 거기 들어가서 잤죠. …… 깨니까 잠이 안 오더라구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하루 저녁 지났는데 집에 들어가면 또 얼마나 트집을 잡을까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잠에서 깨니까. 이왕 왔으니까 상담을 하고 가자. <C씨>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의미를 발견함**

연구 참여자들은 폭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얻은 것에 주목하였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삶의 조건이 더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었다고 하였고, 여전히 자존감이 낮지만 전해 비해 나아지고 있다고도 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전보다 나아진 부분과 내가 얻은 것에 집중하여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긍정적인 변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이루어 낸 변화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하였다. F씨는 남편이 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처하는 자신의 행동이 변했다는 것에 주목하며 자신이 잘 해나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우리 남편의 행동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도 폭력적이거든 여전히. 뭐 손가락 집어 던지고, 그런 일이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밀고 그래서 이거는 폭력이다 그랬더니. …… 그니까 이 사람이 막 이거를 주워 담더라고. 그래서 ‘왜 급하게 주워 담지? 부끄러운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부끄럽대.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지 사람이’ 그러고 그거는 마 무리 지었거든. 그니까 전에는 내가 그렇게 못했다는 거지. …… 이만하면 참 훌륭해. 그렇게 생각했어. <F씨>

**자기 탐색/수용/이해**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의 폭력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남편과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러한 자기 탐색을 바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자기를 돌아봄**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계기는 다양했다.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타인이 보는 내 모습이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웹터에서는 방을 하나 따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 가지가 좀 안정이 됐었나 봐요. 애를 재워 놓고 난 후나 이렇

때 나를 갖다 한 번 되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B씨>

우리 남편이 무지무지 미운데 죽는 건 싫더라구. 그래서 ‘왜일까? 애들에 관한 거를 의논하고 힘을 얻기 위한 것일까?’ 그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만도 아니야. …… 그럼 의존일까?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지. <F씨>

B씨는 웹터에서 아이와 둘만의 공간이 생기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안정을 찾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여 물리적인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설명하였다. F씨는 남편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까지 받아들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탐색하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과 상황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정적인 면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스스로를 돌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고 하였다.

누구도 나를 존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형제 부모도 나를 존중 안 해주는데, 나라는 존재를 이해를 못하고 인간으로 취급 안하는데. 나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집에서) 나와 가지고 내가 깨달은 거야. <A씨>

저도 마음이 강한 쪽도 있지만, 이 불안

한 쪽에서는 강하지가 전혀 못한가 봐요. 나 자신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 40년을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앞으로 계속 치료 받으면, 앞으로 40년을 치료 받으면 이제 죽는 날까지. <B씨>

A씨는 이혼 후 나를 돌봐주고 존중해 줄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B씨는 몇 년 동안 불안장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제는 자신에게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결심하였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주변으로 인해 힘을 얻거나 상실함**

연구 참여자들은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얻고 정서적 지지를 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원가족, 선생님, 사회 단체, 경찰, 종교 모임 등 여러 사람과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힘을 얻었다. 그러나 편견과 비난으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하기도 하였다.

**자녀들이 힘을 실어 줌**

어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로부터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하였다. 집 안에서 폭력을 견딜 때, 집을 나올 때, 집을 나와서 혼자 생계를 꾸려나갈 때와 같이 어려운 상황들마다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D씨는 남편에게 심하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오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돈과 짐을 챙겨주고 격려를 해 주어서 힘을 얻었다.

애들이 내 가방하고 주민등록증, …… \*\*역으로 와서 그걸 전해주고 간 거예요 가방을. …… 엄마 빨리 자리 잡아가시고 우리 꼭 데리고 가라고. 애들이 계속 여러 번 그랬어요. 엄마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막 이랬거든. <D씨>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단절한 후,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거나, 성인으로서 잘 성장한 모습을 보며 현재에 만족하기도 하였다.

지금 너무 세 식구 너무 편하고. \*\*(아들)도 진짜 많이 밝아졌어요. …… 물론 아빠가 없는 거는 좀 미안한데,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E씨>

**쉼터에서의 경험**

쉼터는 임시로 머물면서 먹고 자며 생활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쉼터에 머물며 물질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곳에서 생활하며 다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다.

맨 몸으로 슬리퍼 끌고 나와서. …… 편안하게 있다 나왔어 쉼터 가서. 아주 편하게 쉬었다 나왔어. 한 달 열흘을. 내 평생 그렇게 편하게 쉬어본 건 처음이야. 그렇게 놀지를 앓았거든. <A씨>

컴퓨터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 손을 문에 찢었는데 온 방에 피바다가 되더라고요. …… 그것 때문에 아이가 한1년 동안을 시설에서 나와 가지고도 힘들어한 게, 자기가 자기 감정이 제어가 안 되나 보더라고요. 한 시간, 두 시간을 갖다 악을 쓰고 소리 지르거나, 붉은색 비슷한 것만 봐도 기절을 하려고 한다거나. <B씨>

### 원가족의 영향

원가족은 남편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 연구 참가자는 이혼 후 심리적으로 의지했던 남동생이 술장사를 한다며 비난하고 폭행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 기댈 사람을 찾아서 재혼을 했지만 그 남편도 폭력적인 사람이어서 또 다시 거기에서 벗어나기까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학대를 받아 자신감이 없었던 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남편의 폭력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친정 엄마가 나한테 베풀어준 사랑’이라고 방어적으로 말하며, 남편의 폭력보다 엄마의 학대가 더 큰 문제로 남아있음을 드러내었다.

내가 겉으로는 막 웃고 밝은 사람이었는데 어두웠던 게, 이 세상 어느 누구든 나를 다 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애 아 빠랑 결혼한 이유는 정말 막 살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날 버리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에서. 근데 이게 다 친정 엄마가 다 나한테 베풀어준 사랑이 그거더라고요. <B씨>

반면, 원가족이 남편의 폭력에 단호히 대처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주기도 하였다. 친정 식구들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남편을 나무라거나, 이혼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D씨의 경우 동생이 남편의 폭력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었고, 집을 나왔을 때는 컴퓨터를 알아봐주고 변호사 선임료까지 마련해주어 D씨가 폭력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동생이) ‘언니 아이들이 이렇게 받는 건, 정신적으로 그런 건 그건 하느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니니까 언니가 잘하는 게 아니다’ 늘 얘기를 했었는데. …… ### (여성 인권단체) 가서 거기서 다시 얘기 한번 쭉 하고 컴퓨터로 간 거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돈이 없으니까 동생들이 십시일반 돈 거둬가지고 150인가 200만원인가 만들어 줘서 여자 변호사 하고. <D씨>

### 힘을 주거나 빼앗는 그 외의 조건들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외부 요인을 통해서 힘과 자원을 얻을 수 있었다. 경찰서에 남편을 폭력으로 신고한 후 상담을 받으며 남편이 잘못했다는 확신을 얻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로부터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생활 보조를 받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거기 경찰청 가가지고 둘이(남편과) 상담했어. ……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상담자) 나오면서 요만한(손바닥 반질 크기정도) 쪽지를 들어와서 이 만큼 쪽지만큼 했더라도 용서하지 말라고 몇 번을 했는줄 알아? 그니까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한 거야. <A씨>

또한 신앙, 교육, 인권 단체 모임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격려 받기도 하였다. F씨는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직면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는 ‘자의식이 깨지는’ 경험이었으며, 그로 인해 힘을 얻어서 F씨는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남편과의 별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

대학원 가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데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나한테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피드백을 줬어. 직면시키고. …… 뒤늦게 대학원에 가서 내가 자의식 같은 거, 그런 게 막 깨진 거지. 그래서 감히 대학원 졸업을 하고 그리고 별거를 한 거지. <F씨>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이와 유사한 요인으로 인하여 좌절하기도 하였다.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 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아서 달리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이혼 후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 전에 쓴 카드빚까지 갚아야 했으며,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 저는 먹고 살기 위해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라도 안 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같이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면 거기 못

끼고, 돈을 쓰더라도 계산을 몇 번을 해야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떨어지고. <E씨>

이혼에 대한 주위의 편견이나 낙인도 폭력을 겪은 여성들이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한 연구 참여자는 취직을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에 자녀와 본인 이름만 올라온 것을 본 면접관이 남편이 없는지 물어보자 남편과 이혼한 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웠다고 하였다. E씨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자녀들과 당당하게 잘 살아왔으나, 두 번째 남편과도 사별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팔자가 세다’, ‘앞으로 남자를 만나지 말라’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자주 들으면서 더욱 위축되었다.

‘두 번씩 사별했는데 니 팔자는 왜 이러냐.’ ……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허허. ‘어, 니 팔자는 왜 그러냐’ 얘기 들었을 때, ‘여자가 얼마나 세면 남자를 둘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 그냥 눈물이 나죠. (눈물 흘림) <E씨>

#### 친밀한 관계의 재구성

남편의 폭력에 대처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원가족, 타인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의 부정적인 면을 직면하고,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면 개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를 단절하였다. 남편과의 관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여러 관계와 관계망을 정비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원가족과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음**

남편과 관계 단절을 계기로, 원가족의 폭력에 시달렸던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과의 관계도 끊게 되었다. 친정 식구들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기도 하고, 남편을 피해 다니며 연락처를 바꾼 것이 친정과 연락을 끊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폭력적인 관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핸드폰 번호 다 바꿨잖아요. 여기 이사 하고서 (친정 식구와) 연락을 끊었어요. …… 그리고 애 돌 사진도 버렸어요. 친정 부모, 시부모 얼굴도 다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애 비디오, 돌 때 비디오도 다 버리구요. <B씨>

**관계의 지형을 바꾸고 긍정적인 경험을 함**

연구 참여자들은 폭력적인 남편과의 관계를 끊거나 개선해나가며, 남편이나 자녀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새롭고 긍정적인 경험도 하였다. F씨는 남편과 다시 함께 살면서 남편이 비난을 하는 경우, 이를 내면화 하거나 남편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남편과 자신에게 각각 책임이 있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남편도 ‘엄마가 되가지고 뭐했냐.’ 보통 비난하잖아? …… ‘당신은 부모가 아니냐, 왜 엄마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당신은 당신 입장에서 당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고, 난 내 입장에서 내 역할을 하면 충분한 거다. 서로 손가락질 할

필요 없다.’ <F씨>

E씨는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남편의 폭력이 있을 때에도 친정 어머니로부터 위로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쉽터에 함께 머물던 사람들과 상담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안 쌓인 것들을 풀 수 있었다. 그 후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고 어머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계가 더 좋아졌다.

우리 엄마가 ‘너는 나하고 너무 똑같아서 더 미워했다’ 그러시더라고. ‘너는 나보다 세대가 더 좋은 시대에 살면서 당신보다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 그래서 엄마가 지금은 왕래도 해주시고 전화도 가끔 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E씨>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경험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이혼 후 여유가 생기면서 이전과 달리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F씨의 경우 자녀들과 친밀하고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아이들과 정서적 분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자녀들의 심리적 독립을 돕고 싶다고 하였다.

아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 남자를 홍보는 그런 짓을 이제는 그만 해야 되겠다는 거지. …… 애들은 나로부터 독립하고, 저 아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어. <F씨>

그 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 남자친구를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는 직장 상사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직장 동료들의 부정적인 평가나 험담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 남겨진 과제와 희망

연구 참여자들은 여전히 폭력 경험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 폭력 경험 후 남겨진 문제들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의 폭력에 대한 기억과 분노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자녀에게서 보이는 폭력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지하고서 자녀에 대해 걱정하며,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남편의 사망에 대해 자책을 반복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남아 있지. 지금 남편과의 관계는 분노가 남아있지. 우리 남편은 원래 분노의 사람이거든. …… 근데 나도 남편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지. 분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나의 핵심 과제지. <F씨>

그러면 내가 나를 만나서 저 사람(남편)이 저렇게 되지 않았나(남편이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됨). 내가 술을 따르면서 반찬을 하면서 밥을 하면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서 이

렇게 됐으니까 내가 정말 나쁜가보다. …… 그거를 힘들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막 나요. <E씨>

#### 앞날에 대한 희망과 바람들

연구 참여자들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며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진심으로 살면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B씨는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적 상황이 더 나아졌고, 노력하면 길은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 따라 또 간절히 원하고 알아보고 하면 길은 또 있더라고요. 영세민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모은 돈하고 해서 집 얻었거든요. 그니까 노력해볼 데 까지 해 보니까 어디선가 길은 있더라고요. <B씨>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 분석을 받고 싶고,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싶다는 설명을 하며 내적인 성장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내가 지금까지라도 살고, 오늘 죽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죽으면, 참 편안히 죽을 것 같아요. …… 하나의 경험이라고 여기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죽을 수 있는 내가, 인간성이 돼야지 하고 나에게 주문을 걸어요. <C씨>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아내 폭력 생존자들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에 관해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아내 폭력에서 벗어난 생존자 6인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주제를 분석하였다.

이들이 보고한 변화 경험에서 ‘힘을 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단절함’, ‘자기 탐색/수용/이해’, ‘주변으로 인해 힘을 얻거나 상실함’, ‘친밀한 관계의 재구성’, ‘남겨진 과제와 희망’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얻었다. 상위 주제 중에서 기존 관련 연구들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위 주제를 구성하는 하위 범주의 맥락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설명들을 통해 아내 폭력 생존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인 ‘힘을 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단절함’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점 이후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신감, 천천히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힘 등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여 폭력 단절을 위한 자신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이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남편의 폭력을 단절하는 것은 한 두 차례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일련의 과정으로,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여러 단계로 이어져있다고 알려져 있다(김주현, 2006,

재인용). 이처럼 지속적인 과정을 밟아나가려면 폭력 관계 단절이라는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확신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장기적으로 폭력을 단절하는 과정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주제에서는 Farrell의 연구(1996)에서 드러난 ‘유연성’과 공통점이 보인다. 과거의 폭력 경험으로 인한 영향을 차단하고자 하고, 자각 수준이 높아지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설명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며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고 있는 아내 폭력 생존자들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자기 탐색/수용/이해’로,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자기를 이해하였다. 아내 폭력에서 벗어나면서 여성들이 이전에 비해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은 본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에서도 종종 설명되는 부분이다(예, 김주현, 2006; 김혜련, 1995; Farrell, 1996; Senter, & Caldwell, 2002).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의 폭력에 대처하는 와중에 자신을 향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조건과 자극들, 예를 들어 남편과 떨어져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상담, 가까운 사람의 조언 덕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히 폭력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기 이해의 과정에는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변에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 자기에게 심리적 장애가 있다는 것과 같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받아들이며,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외상 경험에 대한 인지적 처리(cognitive processing)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edeschi와 Calhoun(2004)은 어떤 사건과 관련된 반복되는 생각이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다고 하는 기존의 설명과는 달리, '이해하기, 문제 해결하기, 회상, 기대'와 같은 다양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한 Martin과 Tesser의 반추 개념을 활용하여, 외상 경험 이후에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반복적인 생각을 '인지적 처리'라고 개념화하였다. 박혜원과 안현의(2006)가 국내 지방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상 관련 반추가 외상 이후의 긍정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외상 경험으로 인하여 인지적인 처리가 촉발된다는 설명도 본 연구에서 드러난 자기 이해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Morris, Shakespeare-Finch, Rieck과 Newbery(2005)는 PTSD 증상이 인지적 활성화를 촉진시켜 외상을 경험한 개인들은 외상 경험에 관해 숙고하게 되며,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재해석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신념을 재구성하며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연구 참여자들도 외상 경험인 아내 폭력 피해로 인하여 인지적 처리를 하게 되었고, 전보다 자신에 대해 더 이해하고, 스스로를 수용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떠 오른 세 번째

주제는 '주변으로 인해 힘을 얻거나 상실함'이었다. 이들은 자녀, 부모, 형제와의 관계, 쉼터 및 경찰과 같은 사회 제도 및 종교적 체험, 교육, 경제적 상황,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과 같은 무형의 것들을 통하여 남편의 폭력을 중단시키거나, 폭력 관계에서 벗어날 힘을 얻기도 하였지만, 동일한 대상이나 요인으로 인하여 오히려 좌절하고 힘을 잃기도 하였다.

이 주제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거나, 받지 못하여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첫 번째 주제의 하위 범주 중 '외부의 도움과 자원을 찾아다님'에 해당하는 내용들과 유사점들이 있다. 그러나 '외부의 도움과 자원을 찾아다님'은 개인의 대처 방식에 초점을 맞춘 주제인 반면, 세 번째 주제인 '주변으로 인해 힘을 얻거나 상실함'은 외상 연구에서 종종 관심을 갖는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도움을 받아 힘을 얻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외부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주변인들의 지지나 지지에 대한 만족(support satisfaction)이 아내 폭력 피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여러 연구들(예, 손정남, 차보경, 2007; 전철은, 현명호, 2003; Andrews, Brewin, & Rose, 2003)과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이 긍정적인 지지가 없는 경우보다 PTSD 증상과 더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예, Andrews, Brewin, & Rose, 2003, 재인용)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주제로는 '친밀한 관계의 재구성'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자녀나 원가족 등 다른 관계에서도 변화를 경험하였다. 남편과 헤어지

기도 하지만,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전과 달리 남편의 분노를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폭력 관계는 단절하였다고 보고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주현, 이연호의 연구(2008)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드물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비폭력적으로 유지해 가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준다.

원가족은 연구 참여자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대상으로, 원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특히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학대 받은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 관계도 단절하여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였다. 반면 원가족과 소통을 시도하여 이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원가족으로부터 수용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자녀와 너무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리를 두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자녀에게 냉담하게 대하고 거리를 두고 살다가 자녀를 사랑하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전과 달리 관계에서 수용과 신뢰, 독립성 등을 경험한다는 내용 역시 아내 폭력 생존자 여성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예, 김주현, 2006; 김주현, 이연호, 2008; Farrell, 1996; Senter, & Caldwell,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내용 중 하나가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이었다. 남편뿐만 아니라 원가족과도 폭력적인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보고하는 경우는, 남편의 폭력 피해와 더불어 어린 시절부터 원가족에 의한 육체적·심리적 폭력 피해도 있었으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고 하였다. 따라서 아내 폭력 생존자 여성이 원가족과 맺고 있는 관계를 파악할 때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원활하였는지 등 더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주제는 ‘남겨진 과제와 희망’이었다. 폭력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폭력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자녀가 보이는 비적응적 행동 및 타인들이 이혼한 여성에게 보이는 불편한 태도와 같이 앞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었다. 동시에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면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자기를 수용하고 이해하여 통합된 존재로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싶다는 실존적인 고민 등 앞날에 대한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폭력 단절 이후에도 폭력 경험에서 파생된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나긴 여정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그 긴 여정 중에서도 앞날에 대한 희망이나,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아내 폭력 피해자로서의 정체성만 있는 것을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회복’이나 ‘변화 유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예, Farrell, 1996; Senter, & Caldwell, 2002) 폭력에서 벗어나는 전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던 김주현의 연구(2006)에서 중심 현상에 대한 결과로 ‘힘의 균형을 이룸, 고통을 통한 성장, 내 몫으로 남겨짐’이라는 주제로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회복이나 폭력 관계에서 벗어난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는 이 여성들의 부정적인 증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처럼 이들의 경험을 모두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위의 다섯 가지 주제는 아내 폭력 생존자들이 경험하는 변화의 내용과 과정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인터뷰에서 여러 변화들의 발생 순서에 대하여 직접 물어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다양한 주제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힘을 내서 폭력 단절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탐색과 수용과 이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탐색과 수용과 이해가 이루어지며 친밀한 관계를 재구성해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각 주제들 간 복잡한 관계에 대하여 Herman(1997)은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아동 학대와 같은 외상 경험 이후의 회복 단계는 나선형을 따르고, 과거의 문제들은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찾아온다고 설명하였다. 아내 폭력 경험에서 회복 과정은 전체론(holism)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며 어떤 특정한 시기나 과정이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렵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Farrell(1996)의 설명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스스로 회복하고 과정과 결과를 분명히 알기 어려운 성장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아내 폭력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고려할 때 상담자들은 아내 폭력 경험을 보고하는 내담자들에게 지지적이고 내담자의 강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안은 외상 치료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힘과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Herman(1997)의 설명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내담자의 안전, 역량강화, 타당화, 강점 강조, 외상으로 인한 증상의 감소, 교육과 대안 넓히기를 강조하는 생존자 치료(survivor therapy)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Walker, 2000). 생존자 치료의 원리들은 기존 심리 치료 이론과 비교할 때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폭력 피해자인 여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 따라 상담 목표와 과정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광은, 2006).

본 연구는 ‘아내 폭력’이라는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문제를 주제로 하여 상담의 사회적 공헌에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였으며, 고통 속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적응유연성(resilience)을 발휘하여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연구하여 개인에게 잠재된 힘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쉽터와 같은 공식적인 지지체계를 거쳐 갔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있는 기능 수준이 비교적 높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능 수준이 낮거나 오랫동안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내 폭력 피해 여성 중에서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드러나지 않았던 특징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쉽터와 같은 공식적인 지지체계를 통하지 않고서 폭력관계에서 벗어난 여성들이나, 폭력 관계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아내 폭력에서 벗어나는 포괄적인 경험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결과에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변화 과정에 대하여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변화 과정이 아니라 자기상, 자기 이해,

사회적 지지, 원가족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등과 같이 세부적인 영역의 변화를 연구하여 변화의 과정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칙 발견을 추구하지 않고, 추구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가정하는 질적 연구의 특징으로 인하여 유사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된 유사점 및 차이점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양적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긍정적 변화와 관련된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긍정적 변화를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은 (2006). 생존자 치료 관점에서 본 쉼터 거주 내담자들의 아내 폭력 상담 사례 연구. *여성연구*, 2, 43-73.
- 김광일 (1985). 구타당하는 아내 50예의 정신 의학적 연구. *정신건강연구*, 3, 2235-256.
- 김선아, 김소야자, 남경아, 박정화, 이현화 (2003). 가정 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한 여성의 피해 실태와 정신 건강. *대한간호학회지*, 33(7), 981-989.
- 김승권 외 (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예정, 김득성 (2006).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6), 141-153
- 김주현 (2006). 가정폭력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현, 이연호 (2008).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비폭력적 결혼관계 유지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3(8), 5-42.
- 김혜련 (1995).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 서울: 또하나의 문화.
- 박혜원, 안현의 (2006).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성 및 외상관련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1), 201-214.
- 손정남, 차보경 (2007). 가정폭력 경험 여성들의 심리적 결과 예측에 대한 모형 구축. *정신간호학회지*, 16(4), 398-410.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2004).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심영희 (1998).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정체성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17, 389-440.
- 이수정 (2006). 가정폭력에 기인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 재소자의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2), 35-55.
- 전철은, 현명호 (2003).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2(4), 763-776.
- 정희진 (2000). '아내폭력'경험의 성별적 해석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가족 내 성역할 규범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희진 (2001).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가정폭력과 여성 인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홍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2006). *여성복지학 2판*. 서울: 학지사.
- 홍창의, 박유숙 (2001). 남편의 폭력이 아내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자아 탄력성,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를 중재변인으로. *심*

- 리과학연구, 2(1), 1-20
- Abrahams, Hilary. (2007). *Supporting women after domestic violence: loss, trauma and recovery*. Philadelphia :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Allen, Jon G.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2nd 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ub.
- Andrews, Bernice, Brewin, Chris R., & Rose, Suzanna. (2003). Gender, Social Support, and PTSD in Victims of Violent Crim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6(4), 421-427.
- Creswell, John W., Hanson, William E., Clark, Vicki L. Plano, & Morales, Alejandro. (2007). Qualitative Research Designs: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5(2), 236-264.
- Farrell, M. L. (1996). Healing: A qualitative study of women recovering from abusive relationship with men.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32(3), 23-32.
- Hammersley, M., & Atkinson, P. (1995). *Ethnography: Principles in Practice*. London: Routledge.
- Herman, Judith. (2007). *Trauma and Recovery*. 최현정(역). 트라우마. 서울: 플래닛. (원서출판 1997).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 11-21.
- Morris, B. A., Shakespeare-Finch, J., Rieck, M., & Newbery, J. (2005) Multidimensional nature of posttraumatic growth in an Australian popul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 575-585.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 71-105.
- Senter, K. E., & Caldwell, K. (2002). Spirituality and the Maintenance of Change: A Phenomenological Study of Women who Leave Abusive Relationship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4(4), 543-564.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Park, C. L., & Calhoun, L.G. (1998).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Issues*. In Tedeschi, R. G., Park, C. L., Calhoun, L.G. (Eds.),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Crisis*(pp. 1-22).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Walker, Lenore E. (2000). *Abused women and survivor therapy : A practical guide for the psychotherapist* (3r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 차원고접수 : 2010. 11. 5.

심사통과접수 : 2011. 3. 4.

최종원고접수 : 2011. 3. 17.

## **A Qualitative Study of Change Processes in Women Who Left Their Abusive Husbands**

**Sang-hee Hong**

**Hyun-nie Ah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henomenological study aimed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women who left their abusive husbands. Participants were 6 women who made an effort to cope with the domestic violence and seemed to have stopped the painful relationship with husbands.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ing the 6 participants with semi-structured interview protocol to ask their experience of leaving husband-to-wife violence. Main themes, with 14 sub-themes, which emerged from the data were “keeping severing the violence with strength”, “self-exploring/ accepting/ understanding”, “strength gained/ lost by outer factors”, “reconstruction of intimate relationship”, and “lingering problems and new hopes.” Each sub-theme was described with related main themes. Discussion as to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the domestic violence survivors followed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Key words : abusive relationship, domestic violence survivors, phenomenological study, change process,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 부 록

### 의미 단위, 하위 범주, 상위 주제 범주화

상위 주제	하위 범주	의미 단위
힘을 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단절함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인식에 따른 결단	폭력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식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폭력을 막을 수 없음을 받아들임
		남편의 폭력 성향에 대해 이해한 후 이혼을 결심
		폭력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인식
		남편에 대한 분노를 감당할 수 없어 별거 시작
		내가 남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됨
		법적인 대처를 함
		집을 나오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실행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남편에게 폭력으로 대항
		극에 도달했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냄
		상황을 마지막이라고 인식하자 두려움 없이 대항할 수 있었음
		남편에게 분노 반응을 보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살아감
		자신의 능력을 인식
이혼 이후 시련을 극복해 왔음		
타인이 나에게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짐		
경제적으로 넉넉하여 든든함		
일을 하며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감이 생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생활력은 있음		
스스로를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식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낌		
자신의 성실함 인정		
공부를 하며 관계망을 확장하게 됨		
외부의 도움과 자원을 찾아다님	외부의 도움과 자원을 찾아다님	주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함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음
		지원 기관들을 찾아다님

		불안과 두려움을 견디며 지원 기관을 찾아감
		전화 상담을 통해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움
		여성인권단체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음
		자녀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친정으로 감
		힘든 상황에서 더 강하게 대처하게 됨
		사회생활 하면서 유연한 성격을 적극적으로 개발함
		전보다 자존감이 높아짐
		기가 살아남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자신이 대견함
		남편이 폭력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함
		안전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함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의미를 발견함		지금까지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함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삶에 만족함
		표정 변화를 통해 인생이 즐거워졌다는 것이 드러남
		일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변화가 있음
		관계에서 겪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깨달음
		대인관계에서 편해지고 여유가 생김
		자녀가 자신의 요구를 당당하게 주장함
		자녀의 폭력 성향이 줄어 듬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더욱 강해짐
		폭력 상황에 휘말리지 않은 것에 만족하고 긍정적 변화를 느낌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음
		침터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됨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스스로 수용하게 됨
		내가 어떤 사람인가 돌아봄
자기 탐색/ 수용/ 이해	자기를 돌아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탐색함
		남편이 죽어서 내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분석을 해움
		타인에게 외향적인 모습만 보이려고 했음을 알게 됨
		타인이 보는 내 모습이 내가 아는 모습과 다름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함
		자기 수용이 늘어난 것이 만족스러움



	대학원에서 스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됨
	가족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보고자 함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평정심 유지하고자 함
자신의 부정적인 면까지 받아들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힘이 듦
	자신을 수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자신도 그렇게 되고자 함
	엄마의 부정적인 태도를 내가 딸에게 반복하고 있음을 인식
	불안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임
	정신과 치료를 편하게 받아들이기로 함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
	남편의 폭력에 대한 나의 책임 부분을 인식
주변으로 인해 힘을 얻거나 상실함	자녀들이 아빠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여 힘을 실어 줌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
	힘든 상황에서 자녀와 일을 분담함
	부모의 이혼을 원하는 아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음
	아이들에 대한 강한 신뢰
	집을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준비해 줌
	자녀와 소통을 통하여 신뢰감과 지지감의 형성과 강화
쉼터에서의 경험	일상에서 어려운 일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의지함
	폭력으로부터 벗어난 후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을 보고 안정됨
	쉼터에서 편히 먹고 쉴 수 있었음
	쉼터의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됨
	쉼터에서 사고를 당함(타인의 가해)
	상담에서 공감을 받음
	상담을 받으며 남편의 폭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됨	
쉼터에서의 경험	남편과 분리되어 지금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
	집단 상담을 받으며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거부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음
	쉼터 관리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지를 얻음

원가족의 영향	동생에게 마음으로 의지했으나 학대 받음
	가족의 학대를 피해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함
	아버지의 지지와 인정을 받음
	엄마가 남편의 폭력에 대해 나를 비난함
	엄마의 심리적 학대
	이혼 결정에 대한 친정 식구들의 격려와 지원
	언니네 부부를 보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
	동생이 폭력 가정에 머무는 것이 해로움을 일깨워 줌
	동생이 쉼터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줌
	동생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정적 도움을 줌
	폭력상황에서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
	원가족 안에서 존중 받고 사랑 받는 경험함
	친정식구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음
	상담자가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여 나에게 확신을 줌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	
힘을 주거나 빼앗는 그 외의 조건들	주변 사람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 받음
	종교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긍정적 시각을 갖게 됨
	이혼 이후 남편이 만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경찰에서 신고 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오랫동안 경찰에 신고할 생 각을 못함
	사회복지사를 통해 쉼터로 가게 됨
	지원 단체의 물질적 도움을 받음
	사회복지사의 자의적 지원에 상처받음
	주위에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아이가 엄마의 사고를 목격하고 충격 받음
	안전한 집에서 지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함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있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위급한 상황에 서 도움을 받음
	남편의 사망에 대해 주변에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을 듣고 위 축됨
	직장 상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힘이 듦

	<p>낮은 경제적 · 사회적 지위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됨</p> <p>여성주의적 분석을 통해 지지를 받음</p> <p>일을 하면서 역량이 강화됨</p>
원가족과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음	<p>나를 힘들게 하는 친정 식구들과 관계를 끊음</p> <p>과거의 사람들과 단절하고 현재 중요한 사람에 초점을 맞춤</p> <p>남편, 친정, 시댁과 관련된 사진 버림</p> <p>폭력적인 남편과 관계를 끊으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엄마와의 관계도 다름</p>
친밀한 관계의 재구성	<p>파트너에게 힘을 주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줌</p> <p>외로울 때 위안이 되어 준 현재 파트너에게 감사함</p> <p>결혼을 결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짐</p> <p>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보답함</p> <p>부모로부터 받았던 폭력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는 결심</p> <p>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됨</p> <p>이혼을 지지하지 않았던 언니들의 입장을 이해함</p> <p>남편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식</p> <p>가족에 대한 의무, 과도한 동일시에서 벗어남</p> <p>남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직면</p> <p>타인과의 관계에서 편해지고 여유가 생김</p> <p>엄마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 나감</p> <p>친정 식구들과 편안하게 왕래하게 됨</p> <p>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편안해짐</p> <p>별거 동안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과장 되어있음을 인식하고 남편의 폭력성의 한계를 파악함</p> <p>남편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함</p> <p>그 동안 폭력에 대한 남편의 사과와 폭력을 멈추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임</p> <p>남편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p> <p>자녀 양육에 대한 남편의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음</p> <p>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갖도록 돕고자 함</p> <p>자녀를 심리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노력</p>

<p>남겨진 과제와 희망</p> <p>폭력 경험 후 남겨진 문제들</p> <p>앞날에 대한 희망과 바람들</p>	혼자서 외로운 시간을 견뎌
	이혼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주변에 드러낼 수 없었음
	남편이 찾아올까봐 불안함
	한부모 가정으로, 도움을 받고 사는 처지임을 남들이 알게 되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
	엄마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음
	부정적 자아상
	자존감이 낮음
	남편 없는 여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기가 죽음
	주위에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남자들과의 관계가 불편함
	아빠를 닮은 아들을 보면서 폭력이 대물림 될까 걱정함
	가정을 유지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함
	가정이 깨진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타인의 가정이 깨지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
	남편의 사망에 대한 자책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비난을 받을 까 봐 두려움
	기분 변화가 심해짐
	마지막 폭력 상황을 생각하면 맥이 풀리고 한숨이 나옴
	자녀도 배려해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경직됨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생기 없어짐
	남편에 대한 분노가 현재까지 남아있음
	자녀를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음
	가정에 폭력적인 분위기가 남아있음
	어려운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함
	아이를 낳아서 처음부터 사랑해주는 경험을 하고 싶음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뒷바라지를 하고자 함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기를 바람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 생각함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음	
분석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자 함	
현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	